

6·3 지선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당선자도 '상당수'

광주·전남경찰, 133명·550명 단속 2명·23명 송치...38명·59명 종결 고소·고발 영향 '흑색 선전' 최다 '집중기간' 마지막날 검찰청 폐지

광주경찰은 이 중 2명을 송치했고 38명에 대해선 불송치 종결했다. 전남경찰의 송치와 불송치 종결 인원은 각각 23명, 59명이다. 전체 단속 건수 중 광주에선 흑색 선전이 36명으로 최다 유형이었다. 그 뒤는 기타(32명)를 제외하고 ▲금품수수 28명 ▲사전선거운동 14명 ▲현수막·벽보 훼손 10명 ▲불법 단체 동원 8명 ▲공무원 선거 관여 7명이었다. 전남도 흑색 선전이 257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와 사전선거운동이 각각 98명으로 나란히 뒤를 이었고 ▲기타 52명 ▲현수막 벽보 훼손 15명 ▲인쇄물 배부 14명 ▲선거 폭력(방해) 10명 ▲공무원 선거 관여 6명 순이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선거범죄는 전남에서만 1명이 적발됐다. 현재 1명은 검찰에 넘겨졌고 4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양 지역에서 흑색 선전 비율이 제일 높은 건, 선거 과정에서 후보 간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사 선상에 오른 당선자도 상당하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선출된 민형배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 과정에서 상대 진영으로부터 두 차례 고발당했다. 김대중 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자는 전남도교육감 신분으로 떠난 해외 출장 중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

신수정 북구청장 당선자는 권리당원 모집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분투표 직전 고발된 상태다. 박종원 담양군수 당선자에 대해선 전남도의원이었던 지난해 말 선거구 주민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명현관 해남군수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행정당국을 동원해 지적을 알렸다는 의혹을 받는데, 이를 규명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한 차례 이뤄졌다. 김산 무안군수 당선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그는 출마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광주·전남경찰청은 오는 10월2일까지 '집중 수사' 기간으로 운영하며 모든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 당선자 측이 답례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권을 주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배후까지 발본색원하겠다"면서 "선거 범죄를 알고 있거나 목격한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6·3 지선의 공소 시효 만료일은 올해 12월 3일이다. 경찰의 집중 수사 기간 마지막 날인 10월2일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이다. /안재영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광주·전남 지선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 4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6·3 지선 선거사범으로 각각 133명, 550명을 단속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열린 4일 광주 대성고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김애리 기자

“6월 모평, 국어·영어 쉽고 수학 작년과 유사”

4일 시행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가 국어·영어는 다소 쉽고, 수학 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에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광주진로진학지원단 담당이 6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어는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전체적인 출제 경향은 지난해 수능과 유사했으며 문항 난도는 다소 쉬웠다. 초고난도 문항을 지칭하는 길러 문항이 없어 학교 교육과정과 EBS 연계 교재의 학습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EBS 연계 교재의 체감도가 높고, 신유형과 복잡한 추론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문항이 없어 수험생들의 문제 풀이 부담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수학은 전반적으로 작년 수능과 유사한 수준에서 출제됐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쉬운 수능'의 기조를 유지했으나 일부 문항에서는 주어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요구해 수험생별로 체감하는 난도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통과목의 문항 구성은 전년도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할 때 각 단원별 문항 배치는 수학Ⅱ 단답형에서 1문항의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공통과목 전반적으로 기존 출제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는 매우 어렵게 출제됐던 지난해 수능에 비해 쉽게 출제된 경향을 보였다. 다만 빈칸 추론 3번, 3번 문항과 글의 순서 37번 문항은 지문의 논리적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정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기에 변별력이 있었다. 영어는 전반적으로 지문에 사용된 어휘 수준이 평이하고 문장 구조도 과도하게 복잡하지 않았으나 일부 추론 능력을 묻는 문항을 통해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평가원의 출제 기조에 잘 부합하는 시험으로 진단됐다. /박선욱 기자

5·18 재단 항의로 일베 '기업 광고' 사라졌다

신세계 면세점 등 9곳 대행사 통해 송출 대상 제외 요청·조치...“모니터링 강화” 5·18민중화운동은 왜곡하고 유공자를 폄하해 온 일베저장소(일베) 사이트에 노출됐던 기업 광고 송출이 중단됐다. 4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신세계 면세점 등 9개 기업 광고가 지난 2일부터 일베 사이트에 노출되지 않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지난 1일 재단이 항의성 공문을 통해 광고 중단을 요청한 곳들이다. 이후 일부 기업들은 자사 관련 광고가 일베에

노출되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현재 일베에선 불법 사이트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법인만 광고 형식으로 표출되는 중이다. 재단은 기업 광고가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며 추가 사례가 확인될 경우 이번처럼 광고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5·18민중화운동의 폄하하고 조롱하는 세력들에 대한 경고”라며 “5·18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곳에 보탬이 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성 기자

김대중 道교육감 업무 복귀...‘통합’ 출범 점검

조직·인사·자치법규·재정 등 오늘 최고진 교육부 장관 면담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4일 업무에 복귀해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출범 준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복귀 후 첫 행보로 이날 회의를 열고 통합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회의에서는 조직·인사, 자치법규, 교육과정, 재정 등 분야별 준비상황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조직·인사 분야는 통합 초기 안정적인 출범에 무게를 두고 종전 관할 구역별 체계를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치법규 분야는 통합 과정에서 법적 미비로 인한 행정 공백이나 제도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관련 법규제·개정 추진을 추진했다. 김 교육감은 5일 최고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전남 광주교육행정체제 통합 추진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은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두 지역 교육이 힘을 모아 더 큰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라며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해 통합교육청이 출범 첫날부터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남편 사촌 '부정채용' 교장 선처 호소

학교장 재직 당시 친척의 계약직 채용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학교장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진화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관리법상 사법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A(50대·여)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전남 소재 중학교의 교장이었던 2018년 7월 남편의 사촌 B씨를 기간제 시설관리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A씨는 그를 뽑기 위해 모든 응시자를 부적격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안재영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60415-중-211304호

건강검진

매일체크 ✓ 행복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광주)

